#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'일신제마도'를 색칠해 보자!

규슈국립박물관 '집에서 규슈국립박물관!'

가쓰시카 호쿠사이는 일본의 목판화인 '우키요에' 화가예요. 한국의 조선시대 무렵에 일본에서 활약했답니다. 가쓰시카 호쿠사이가 장수를 소망하며 83~84 살 무렵에 그린 219 장의 그림 중 1 장이랍니다.

九月

封住



이름







Katsushika Hokusai was a famous Japanese woodblock printmaker in the Edo period. He was also a skilled painter. When he was 82 years old, he started painting a lion-dog a day, hoping they would grant him a long life. He made 219 sketches in total, and this is one of them! Try colouring it in.

















